전주대, 빅데이터로 학생성공 지원

베타테스트 버전 선봬… 생애 전주기 프레임워크 설계
'커리어 패스' 서비스도… 진로 설계·취업 정보 도와

전주대학교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는 '학생성공 지원시스템' 베타테스트 버전을 선보였다. 이는 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학생성공 지원시스템' 자체 애널리틱스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인생 설계와 대학본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개별 교과목의 방향성 설정도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해 대학 발전의 한 방향을 '학생성공'으로 지정, '학생성공'에 대한 선행연구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대학교 학생성공을 정의하고 대학 입학 전부터 대학생활, 졸업,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 생애 전주기의 학생성공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

전주대가 꼽은 학생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업역량(Employability)'이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리어 패스(Career path)'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리어 패스(Career path)'는 취업이나 학업에서 성공한 선도학생들의 학업경로, 비교과 활동과 자격증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배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방향에 따라 커리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서, 재학생의 진로설계와 취업정보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데이터 볼륨을 확장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 학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가 수집됐으며, 최근 3년 동안 취업자와 '수퍼스타'로 선정된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정보를 수집·분석해 선도학생을 지정했다. 향후 취·창업자 데이터가 누적돼 선도학생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그 정확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교직원들에게도 학생성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제공된다. 성적 추이분석과 수강학생 분석을 통해 학생의 교육 성취도와 역량을 파악하고 과목의 난이도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입학생 분석이나 중도탈락률 예측·분석을 통해 교직원에게 학생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의 정책이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호인 총장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학생의 성공'이다"며, "정의된 다섯 가지 학생성공 요인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애 전 과정에서 만족과 행복,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설립된 전주대 빅데이터센터는 교육과정, 취·창업, 산학협력, 국제협력 등 대학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최적화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와 대학에 요구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3일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의 수업고민, 비우고 담다'라는 주제로 초등 수업 전문성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북교육청, 초등 수업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전북도교육청은 13일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의 수업고민, 비우고 담다'라는 주제로 초등 수업 전문성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등 희망교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즐거운 수업 어떻게 만들어 가지?' '더 좋은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 교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내일 수업 어떻게 하지?'를 주제로 하는 오전 프로그램은 △학생이 사고하는 수업 방법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방법 △학생이 즐거운 수업 방법 △칠판사용과 공책 정리 방법 등 수업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이야기 나눔으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수업고민, 비우고 담다'를 주제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4가지 질문과 함께 평소에 교사가 가졌던 수업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수업 협의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아이함께 수업연구회 교사 4명이 강사로 참여하는 분반 형태의 실습형 연구로 평소 교사의 수업 고민을 즉석에서 해결하고 수업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故이세종 열사 숭고한 정신 기려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제1학생회관 도로변에 안내판 설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알려진 故이세종 열사의 추락 장소인 제1학생회관 도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그간 바닥에 표지석만 설치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북대는 총학생회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리고,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안내판 제작에 나섰다. 가로 50Cm, 세로 1m 10Cm 크기로 세워진 안내판에는 상단에 당시 이 열사가 계엄군에 쫓겨 사망한 채로 발견된 역사적 장소임을 알리는 문구와 주요 약력이 표기됐고, 중단에는 이세종 열사 추모비 문구인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가 새겨져 있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사범대 3호관 벽면에 그려져 있는 민중의 투쟁을 담은 벽화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설치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 자주·민주·통일된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담은 이 거대한 벽화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가치를 1988년 '전북지역 청년미술 공동체'가 그린 작품이다.

이 벽화는 대학에 얼마 남지 않은 희소성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대학 내에 얼마 남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해 1980년대 살아있는 민주화 정신을 회복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거점대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학내 문화유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 발굴하며,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사범대 3호관 벽면에 그려져 있는 민중의 투쟁을 담은 벽화.

주민참여예산위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본청 8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보 공유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교육재정의 이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심사 방법, △분과위원회별 협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전북교육재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돼 전북교육 재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사업의 제안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2021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6월 중 공모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SW교육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은 2020년 상반기 소프트웨어(SW)교육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2일 연구정보원에 따르면 SW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SW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SW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며 학생 중심의 SW교육 교수·학습 방법 모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SW교육 아카데미는 애니메이션 SW 과정·노벨엔지니어링 과정·레고 SW 과정이 운영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각 과정마다 16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7월 11일·18일·25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학부모 대상 SW교육 아카데미는 학부모 1명과 초등 저학년 자녀 1~2명이 한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7월 11일·18일·25일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각 회차마다 16팀(32~48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15~17일까지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입학사정관 평가역량 강화 교육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3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입학사정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올해 915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대비해 교수 위촉 입학사정관과 전임 입학사정관 88명을 확보했으며, 이들의 사명감을 향상시키고 평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역량 강화 교육(윤리성·공정성 확보, 대입전형 기본요소의 이해), △평가역량 강화 교육(학생선발 전략, 입학자료 분석 및 관리, 전형요소 개발), △직무역량 강화 교육(기획력 강화, 통계·엑셀 활용) 등으로 대입전형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3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